

민 정 실	음 진 천
-------------	-------------



**우리는 햇불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역사를 밝힌다.**



매주 일요일: 정기 법회 11시  
 첫째주 일요일 11시 초하루 기도 법회  
 둘째주 일요일 11시 인등기도 법회  
 셋째주 일요일 11시 전법기도 법회, 동지기도 법회 (12월)  
 넷째주 일요일 11시 관세음보살 보문품경 독경법회

불국사 콜롬비아 지역 범등 법회

부처님 제자들의 참선 모임  
 - Buddha's Disciples Sun Meeting -

불국사 후원회 (불국회)

-법회는 한국에서 매달 있습니다. 한국에 계시면서 후원회 법회 참가를 희망하시는 불자님 들은 미국 세인트루이스 불국사나 한국에 있는 불국회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이달의 범구경: - 인생의 여로에서  
 현명하고 지혜있고,  
 선하고, 자제 할줄 아는 친구 만나면  
 동반자로 삼아라.  
 기쁨과 추억 속에서  
 인생 여로의 위험 이겨내게 하라.

If on the journey of life a man can find a wise and intelligent friend who is good and self-controlled, let him go with that traveler, and in joy and recollection let them overcome the dangers of the journey.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용맹정진하여 불국정도 성취한다.**

불국사 (Buddhanara Temple)  
[www.buddhanara.net](http://www.buddhanara.net)  
 874 Berick Dr. St. Louis, MO 63132  
 ☎ (314) 993-0185; 239-9068

2005 년은 부처님 말씀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전법의 해”가 되도록 힘씁니다.

## 불교와 현대사회<3>-장례문화 어떻게 해야 하나

### “화장 후 산골... 가장 불교적”

지난 11일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이 원적에 들면서 법구를 병원 연구기관에 기증하자 장례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 화장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다. 봉분묘로 대변되는 매장문화, 또 그 대안으로 제기된 화장문화.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변화돼야 할까. 보건복지부 김권철 사무관은 “납골시설의 경우 규격과 면적을 제한하고, 수목장과 해안장 등 자연친화적인 장묘방법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며 10월 중 ‘장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설명: 화장의 전통은 불교가 유입된 4세기 이후 널리 행해졌다. 다비식 모습

잇달타 태자의 직접적인 출가동기는 “어떻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고민에서 시작됐다. 동서남북 네 개의 성문을 나선 잇달타 태자는 병들고, 죽은 사람을 접했다. 그리고 번뇌에 쌓였다. 왜 사람들은 고통을 받고 죽는 것일까. 젊은 잇달타 역시 나이가 들면 늙고 병들어 죽을 운명이었다. 중국 진나라 시황제 역시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불로초를 찾아오라며 전 세계에 사람을 보냈지만, 결국 한줌 흙으로 돌아갔다. 이처럼 죽음은 모든 생명에게 찾아오는 만고불변의 법칙이다.

‘정신’과 ‘육체’가 분리되어 각각 다른 개체가 되는, 즉 죽음 이후에 발생하는 여러 의식과 절차를 상례라 하는데, ‘내 몸’은 사회적 관습과 가치관에 따라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처리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 이후 봉분형 매장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산에 봉분을 조성하는 것은 좁은 국토라는 우리나라 여건상 적지않은 문제를 안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4년 12월까지 허가된 묘지면적은 6,481㎢으로, 우리나라 국토면적인 99,500㎢의 6.4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 면적 605㎢의 10.7배에 해당되는 면적이다. 허가되지 않은 개인묘를 더하면 수치는 더욱 증가한다. 잔여 묘지는 90만기 정도로 조사됐는데, 이는 전 국민이 매장을 할 경우 40년 후면 모두 고갈되는 수치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화장문화가 적극 권장되어 왔다. 1990년대 증반들어 화장문화가 확산되면서 1980년 13.7%에 머물던 화장비율이 2003년에는 46.3%로 증가했다. 국민 2명 중 1명이 화장을 하는 셈이다. 하지만 화장문화가 매장문화의 폐해를 대신하기보다 오히려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납골 안치 시설이 과다해지고 있는 것.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김권철 사무관은 “과도하게 석물을 사용해 납골시설을 설치할 경우, 봉분묘보다 더 심각한 환경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봉분의 경우 관리가 되지 않으면 점차로 소실되지만, 석물은 수천년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들어 유교가 국교로 되자, 형식을 중시한 성리학자들은 장례문화에 있어 커다란 봉분을 사용하여 조상을 모시는 것이 ‘효(孝)’라고 여겼으며, 이는 국토 곳곳을 묘지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 대안으로 제기된 것이 화장을 통해 납골을 봉안하는 방안이었다. 화장은 불교의 상장의례법이었다. 인간의 몸은 지(地) 수(水) 화(火) 풍(風)의 4대(大)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장을 통해 다시 그 원류로 되돌려 보낸다는 불교적 의미를 담고 있다. 이처럼 국토의 상당수를 잠식하고 있는 장례문화는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다.

# 경전에서는 ...“죽은 육체에 매달리지 말고 살아서 선업 쌓을 것” 강조

〈잡아함 46 권 모경(母經)〉은 죽음을 바라보는 불교의 시각을 보여준다. 부처님께서서는 코살라국의 파세나디왕이 조모를 잃고 슬픔에 빠지자 “일체중생은 죽는다. 모든 중생은 목숨이 붙어 있을 때 선행을 쌓으면 천상에 오르게 되고, 악업을 지으면 나쁜 곳에 떨어진다.”고 설하셨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니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말 것을 강조한 부처님은 “죽은 육체에 매달리지 말고, 살아서 선업을 쌓을 것”을 강조했다.

부처님께서서는 또한 죽음을 자연으로 돌아가는 한 과정으로 설명했다. 〈신주경〉에 따르면, 아난이 부처님께 “이 세상에 몇 종의 장법(葬法)이 있습니까”하고 묻자 부처님은 “장법은 무수하나, 이 국토에는 수장과 화장, 탑총지장의

셋이 있다”며 “비구가 죽으면 응당 분소( 화장)로 공양해야 한다. 화장할 수 없으면 강물에 넣도록 하고, 강물이 없으면 땅에 묻어라. 땅을 파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풀 깊숙한 곳에 시신의 머리를 북쪽에 두고, 오른쪽 옆구리를 땅에 닿도록 서향으로 눕히고 풀과 나뭇잎을 시신위에 덮어라”고 말했다. 이는 모두가 인간의 몸을 풍수화풍 4 대로 되돌리는 과정이다. 그런데 화장후 부도나 영탑을 조성하여 신체의 일부를 보관하는 관습은 이런 가르침에 어긋난다. 동국대 강사 마성스님은 “납골은 인위적으로 신체를 사대로 환원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며 “납골당과 영탑 등은 비불교적이면서 비생태적인 장법이다. 화장 후 산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이긴 하지만, 산을 깎아 거대한 분묘를 만들거나 영탑을 세운다는 점에서 ‘자연친화적 장례’라는 화장의 원래 목적을 잃어가는 현실이다. 지나친 허식이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다. 납골당, 화장묘는 우리나라의 묘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라는 것이 다수의 인식이다. 돌로 세운 상징물은 결국 수백년이 지나고 나면 자연상태로 돌리기 어려운 ‘생활쓰레기’로 전락할 뿐이다.

불교교리를 바탕으로 볼 때 가장 불교적인 장례법은 ‘화장 후 산골’이다. 최근 들어 논의되는, 나무 아래 유골을 묻는 수목장이나 바다에 유골을 뿌리는 해안장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불교는 삶과 죽음을 구분하지 않는다. 삶이 곧 죽음이요, 죽음이 곧 삶이다. 죽은 시신에 대해 화려하게 장례식을 치르고, 화려한 석물이나 봉분속에 안치하는 것은 허례허식에 불과하다. 최근 원적에 든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이 법구를 연구기관에 기증한 것이 불교교리를 가장 이상적으로 실천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낼 때 수반되는 모든 의례를 상례라고 하는데, 이는 지역과 시대에 따라 다르게 발전해 왔다. 신석기, 청동기시대에는 돌무덤(적석묘)이라고 하여 구덩이를 파고 그 위에 돌을 쌓는 방식으로 시신을 처리했다. 돌무덤은 청동기 시대에 이르러 커다란 돌을 엮는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시신을 묻는 깊이는 그리 깊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삼국사기〉 등에 따르면 동옥저(東沃沮)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바로 장례를 치르지 않고 가매장(假埋葬)하는 풍습이 있었으며, 고구려에서는 집안에 빈소를 만들었다가 3년이 지난 뒤에 장례를 치렀다는 기록도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가매장은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땅속에 매장하지 않고 일정기간 지상에 두었다가 뼈만을 추려 매장하는 방식으로, 묘지는 자기 집 뒷밭의 한 구석, 선산의 밭치 등이었다. 즉, 시간이 지나면 모든 육신은 자연스럽게 자연으로 돌아갔으며, 묘의 흔적도 없어졌다.

화장의 전통은 불교가 유입된 4세기 이후 우리나라에서 널리 행해졌다. 신라의 임금 가운데 문무왕의 수증릉을 비롯해 모두 세 명의 왕이 화장을 했으며, 봉분형 장의와 화장이 널리 겸행됐다. 현재 화장법은 1912년에 조선총독부에 의해 보급된 일본식 방식이 혼용된 것이다.

조선시대 들어 봉분형 분묘가 일반화되면서 화장문화는 스님들의 법구를 처리하는 방법으로만 명맥을 유지하게 됐다. 그러다 1990년대 들어 장묘문화개선운동이 본격화되면서 화장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기 시작, 현재 47%에 이르는 시신이 화장되고 있다.

## # 관심 모으는 장례법: 수목장



사진설명: 은혜사가 시행하고 있는 수목장 현장

인간과 나무는 서로 상생하며,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으로 회귀된다. 이런 섭리에 근거해 사람이 죽으면 화장한 후 그 골분을 수목 아래에 묻고, 나무에 명패를 달아 고인을 추모하는 형태의 장례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은혜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독일, 프랑스 등 유럽국가에서 널리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영천 은혜사에서 수림장을 운영하고 수림장이 보편화된 독일의 경우 북부 삼림지역엔 헨센주에 참나무 숲이 유명하다. 라인하츠 국유림에 속한 이 일대에는 126헥타의 수목장림이 개설돼 있는데, 참나무, 너도밤나무, 자작나무 등이 혼재돼 있다. 나무의 수명이 대략 160년 전후로, 대략 3세대가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기간이다.

장례절차는 화장된 유골을 나무 주변의 땅에 묻고, 나무에 고인의 이름이 적힌 명패를 부착하게 된다. 명패 이외에는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으므로 자연 경관을 해칠 필요가 없다. 서구에서는 한 나무에 최대 10구의 시신을 안치하도록 하고 있다.

은혜사 전진우 총무계장은 “유분을 종이에 싸서 나무 밑에 묻어 결국은 모든 것이 자연으로 돌아가게 된다”며 “친환경적이면서도, 고인을 오랫동안 기릴 수 있는 방식이며, 현재까지 20 여명의 사람이 수립장을 했다”고 말했다. 수립장의 장점으로는 •고인이 매일 사찰에서 들리는 독경소리를 들을 수 있고 •매월 지장재일에 합동 추모제를 거행하며 •백중 설 추석 등에 합동 차례를 하는 점 등을 꼽았다. 화장한 유골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도 매우 신중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호화로운 납골묘, 납골함으로 인한 부작용은 매장보다 더 큰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고인을 가장 잘 모시는 방법은 가장 자연친화적인 방법임을 고려할 때 수목장은 권장할 만한 장례법이다.

## 인도 관습서 유래 ‘해안장’ 최근 일본서 널리 행해져

인도에서 시신을 화장한 후 강에 버리는 관습에서 유래를 찾을 수 있다. 최근 들어 일본에서 널리 행해지는 장례법으로, 해안선에서 2km 이상 떨어진 곳에 유분을 산골하는 방법이다. 유분이 바닷속에서 자연스럽게 분해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라 문무왕의 수증릉이 해안장의 대표적인 예로 꼽힌다.

## 뜬 소문과 부처님에 대한 믿음

부처님조차 의심하는 알팍한 믿음은 결국 불행 불러... 최소한 진실 확인을

부처님께서 기수급고독원에 계실 때의 일이다. 한 장자가 사랑하던 외동아들을 잃고 너무나 상심한 나머지 그만 실성하고 말았다. 장자는 사방을 떠돌아다니며 사람만 만나면 “혹시 제 아들 못 보셨나요?”라고 물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원정사까지 찾아온 장자는 부처님께도 똑같은 질문을 하며 죽은 아들만 생각하면 불쌍해 미칠 것 같다고 했다.

부처님은 장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겠구나 장자여, 네가 질문한 것과 같다.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세상의 변하지 않는 법이다. 사랑하는 이와 이별하는 것도 괴로운 일이고, 미워하는 사람끼리 만나는 것도 괴로운 일이다. 사랑하던 아들이 너를 버리고 죽었으니 어찌 생각나지 않겠느냐?”라며 그를 위로했다. 하지만 상심한 장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도 위안을 얻지 못했다.

정처 없이 거리를 떠돌던 장자는 한 무리의 도박꾼들을 만나 “사문 고타마는 ‘사랑하는 이와 이별하는 괴로움, 미운 이와 만나는 괴로움, 이런 것들을 즐거운 일이다’고 말했습니다.”라며 부처님의 말씀과는 반대로 말했다. 도박꾼들은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었기에 장자가 말한 허위사실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소문은 삼시간에 성안으로 퍼져나가 마침내 파세나디(pa-sena-di) 왕에게까지 전해졌다.

왕은 부인에게 소문에 대해 말하며 부처님을 의심했다. 하지만 마리 부인은 “저는 여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설령 여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다면 거기에는 틀림없이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라며 부처님을 옹호했다. 성안에 파다하게 퍼진 소문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고 오히려 변론하는 부인을 본 왕은 화를 내며 부인을 내쫓아버렸다.

부인은 곧 바로 부처님께 사람을 보내 사위성에 떠도는 소문의 진상을 확인해 오라고 했다. 부처님은 부인이 보낸 바라문을 만나 그간의 사연을 설명하고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가에 대해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했다. 특히 부처님은 한 젊은이의 일화를 통해 뜬소문을 믿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에 대해 말씀하셨다. 즉, 옛날에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아내를 맞이했는데 점차 가세가 기울어 궁핍해 졌다. 그러자 고생하는 딸을 본 장인과 장모는 딸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시집보내야겠다고 했다. 이 말을 들은 젊은이는 격분하여 옷 속에 칼을 숨기고 아내에게 달려가 다그쳤다. 아내는 부모님이 그렇게 말했지만 자신이 이를 거절했다고 했지만 이성을 잃은 젊은이는 이 말을 믿지 못하고 아내를 죽이고 자신도 자살하고 말았다.

부처님은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가를 거듭 강조하셨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의 진의는 부인에게 전해졌고, 선불리 헛소문을 믿었던 파세나디왕도 부인을 통해 오해를 풀고 기원정사를 향해 무릎을 꿇고 앉아 부처님께 찬탄의 예배를 올렸다.

〈중일아함경〉 6권 ‘이양품’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근거 없는 뜬소문과 그것을 쉽게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비극을 초래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시중에 떠도는 헛소문은 부처님 같은 위대한 스승마저 오해와 불신의 소용돌이 속으로 끌어들인다. 부처님은 아내를 죽인 젊은이에 대한 예화를 통해 뜬소문을 비판 없이 믿고 본인의 해명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은 불행한 비극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 스스로도 낭패를 보게 된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얼마 전 한 언론매체에서 불교계에 떠도는 소문을 마치 진실인양 대서특필하여 수많은 스님들과 불자들의 마음에 엄청난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이 일화는 남다른 감회를 준다. 왜곡된 정보와 뜬소문은 예나 지금이나 존재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소문에 대한 진상 확인조차 없이 부처님 같이 위대한 성인마저 쉽게 의심하는 우리들의 알팍한 심성이다.

---

## 불자의 수행과 수행생활

### 3. 각종 법회와 재

불자들은 사찰에서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열리는 각종 법회나 재에 참여함으로써 부처님 말씀을 듣고 수행생활을 더욱 공고히 다지면서 수행과 기도 공덕을 쌓아나갑니다. 특히 재가 열리는 날에는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불보살님이나 영가에게 공양물을 올리고 그 가피력으로 소원을 빌며 공덕을 닦아왔습니다.

재란 불보살님이나 스님, 그리고 선망 부모 등에게 공양물을 베풀고 그분들의 은덕으로 바라던 바 소원을 성취하거나, 궁극적으로 업장소멸이나 정도왕생 내지는 불보살 친견을 간구하는 법회를 말합니다. 말하자면 보시 공덕의 특별한 가피력인 셈입니다.

특히 불법승 삼보 중에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을 불공(佛供)이라 합니다. 이는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의 표시로 올리는 모든 물질적 정신적인 행위를 일컫습니다. 예불도 부처님께 귀의하며 그 공덕을 찬탄하며 올리는 정신적 행위이므로 이 불공의 범주 내에 들어갑니다. 전통적으로 부처님께 올리는 대표적인 공양물로 향·차·등·꽃·과일을 들지만 쌀이라든가 돈을 올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즘은 부처님에 대한 공양인 불공으로부터 공양물을 올리고 치루어지는 각종 행사, 즉 기도, 불교 기념일, 천도제사, 기타 법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달 절에서 정기적으로 열리는 관음재일·성도재일·약사재일이 그렇고 석가모니부처님의 출가재일, 성도재일, 열반재일과 조상님을 천도하는 우란분재·49재·천도재, 물이나 육지에서 외롭게 떠도는 혼령을 위로하는 수륙재, 후생에 복된 삶을 위하여 전생인 현재에 미리 닦아나가는 생전예수재 등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각종 재 의식에 즈음하여 공양을 올릴 때, 우리 불자들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와 내 것이라는 자아의식과 집착을 버리고, 오로지 부처님을 향하여 몸과 마음을 아낌없이 바치는 마음으로 공양을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것이 일상 속에서 이웃에게 보시하는 행위로 이어진다면 그야말로 값진 공양의 실천이요 훌륭한 또 하나의 재의 형태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방생법회는 간혀 있는 생명을 살리는 운동으로서 생명 해방운동이요, 생명살리기 운동이며 궁극적으로 환경보호운동으로 전개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외래어종을 방생하여 오히려 생태계를 파괴시키거나 잘살고 있는 물고기를 잘못된 환경에 풀어주어 오히려 죽게 만드는 폐해를 낳기도 하는 형식적인 방생이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법회소식 NEWS

- 12월 22일은 겨울이 가장 길다고 하는 동지 이므로 12월 18일 3째주에 동지 기도를 봉행 합니다. 조류독감이 세계를 강타하고 각종 지독한 감기가 유행하는 이때 모든 액을 물리치고 힘드는 겨울을 씩씩하고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부처님전에 기도도 올리고 웅심이가 듬뿍 들어간 팔죽도 함께 공양하십시다. 이날 2006년 새해 달력도 드릴 예정에 있으니 모두들 법회에 참석 하셔서 달력들도 가져들 가시기 바랍니다.
-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주시고 중생제도를 하신지 올해로 2549번째 성도재일을 맞이 하는 해 입니다. 매년 불국사에서서는 성도재일을 맞이해서 철야 정진을 거행 합니다. 성도재일은 음력 12월 8일 이고, 양력으로는 2006년 1월 7일 토요일 입니다. 2549년 성도재일 철야 정진은 2006년 1월 7일 토요일 9시에 입재해서 다음날 1월 8일 일요일 6시에 회향을 합니다. 많은 불자님들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 11월 4일 (음력 10월 3일)은 조계종 원로 강석주 큰스님이 입적하신지 1주년 되는 해 입니다. 올해 큰스님 제사는 온양에 위치하고 안양원이 있는 보문선원에서 있었습니다. 불국사 주지스님과 불국사 후원회 분들은 제사가 있기 하루 전에 온양에 도착해서 법당에서 영단 상을 차리고 제사 준비를 했습니다. 제사가 있었던 4일에는 큰스님 제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오신 약 오백여명의 스님들과 신도님들에게 차담을 담당하는 “다각” 소임을 살았습시다. 바쁜 와중에도 1박 2일간 봉사를 해 주시고 당일날 봉사를 해주신 신도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 11월 5일에는 “2549년 불국사 한국 후원회 결산 및 정기법회”를 일봉 금산스님을 모시고 서울에 위치한 옥천암에서 후원회에 몸담고 계신 많은 불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날 “지불불사 마무리에 관한 보고”, “백중기도 동참금에 관한 결과 보고” 그리고 앞으로 불국사가 명실상부하게 포교 도량으로 성장하기 위한 “한 평 불사” 동참에 관한 공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11월 12일에는 전라도 광주와 화순에서 연암 선각 스님을 모시고 순례 법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불자님들의 동참에 감사 드립니다.
- 11월 15일에는 불국사 주지 연암 선각 스님을 포함한 10명의 불국사 후원회 회원들이 한국 조계사가 위탁 운영하는 “서울 노인 복지 센터”에서 이곳을 찾는 2천명의 노인들에게 점식 공양 배식 봉사가 있었습니다. 이날 한국에서 백중기도 동참금 865,000 원을 서울 노인 복지 센터에 전달하는 전달식도 있었습니다.
- 10월 17일부터 11월 17일까지 불국사 주지 연암 선각 스님이 안계신 한 달 동안 불국사를 관리하고 꾸준히 법회를 해오신 불국사 신도님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세인트루이스에 불국사가 있게 한 것은 신도님들 이십니다. 앞으로도 불국사 사랑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 10월 과 11월 신규 인등 기도 동참자: 38번 갑진생 정원석, 66번 경주후인 이윤형 영가, 106번 임자생 김정애, 133번 계묘생 조민규, 134번 경진생 장태순, 135번 병자생 조수빈, 143번 정묘생 권태형, 153번 신축생 심용, 154번 임인생 주정순, 155번 을축생 심수경, 156번 기사생 심지태, 157번 정유생 황인술, 158번 병신생 심애련, 159번 갑술생 황영찬, 173번 임진생 김경철, 174번 병진생 이양숙, 222번 갑오생 김종원, 223번 무술생 육경옥, 224번 경신생 김우성, 225번 신미생 김은정, 226번 갑술생 한금순, 288번 무자생 윤상헌, 289번 갑오생 김혜신, 290번 정사생 윤세용, 291번 경신생 윤세준, 292번 계유생 정다빈. 인등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등기도는 매달 2째주 일요일에 있습니다. 인등 기도에 동참하신 불자님들은 꼭 법회에도 참석해 주십시오. 부득이한 사정으로 법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불자님들께서는 집에서라도 마음과 몸을 정갈하게 갖고 가정에서라도 꼭 기도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
- 현재 불국사에서는 다방면의 불교 포교를 위한 한 평 불사를 하고 있습니다. 불사 동참을 원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불국사 회장님이나 총무님, 또는 불국회 회장님 및 불국회두분 총무님께 연락 주십시오. 한 평 불사 동참자 : 홍성표 - 성불하십시오. -
- 부다나라 템플(불국사) 불자님들 주변의 소식을 접수 받습니다. 기쁜 일은 서로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픈일은 같이 나누면 반으로 된다는 부처님의 자비 사상에 입각해서 불국사(BUDDHANARA TEMPLE)가족들의 경조사를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매주 일요일 정기법회에는 꼭 참석하시어 항상 새로운 마음의 발심을 일으키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불 합시다.